<h1>나 혼자만 레벨업-31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d6f9a6b582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1화</p>  
<p>"네. 복역자분들은 다 C등급이시고, 감시과 헌터분은 B등급이시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세요."</p>  
<p>김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B급 헌터 하나를 이기려면 C급 헌터 열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론이었다.</p>  
<p>B랭크의 상급 헌터가 감시 겸 레이드를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.</p>  
<p>'B랭크 하나와 C랭크 셋이라...'</p>  
<p>진우는 감시과 헌터와 대체 복역자들의 면면을 훑어보다 고개를 갸웃했다.</p>  
<p>'뭔가 이상한데?'</p>  
<p>저들 사이에서 미묘한 살기가 흘렀다.</p>  
<p>이것도 감각 스탯의 작용일까?</p>  
<p>아니면 쓸데없는 노파심에 불과할까?</p>  
<p>어쨌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.</p>  
<p>진우는 주희에게 귓속말했다.</p>  
<p>"주희 씨, 이번 레이드는 빠지세요."</p>  
<p>주희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다.</p>  
<p>"진우 씨는요?"</p>  
<p>진우가 대답 대신 반문했다.</p>  
<p>"제가 간다면요?"</p>  
<p>"그럼 나도 갈래요."</p>  
<p>어떻게든 따라오겠다는 얼굴이었다.</p>  
<p>'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만...'</p>  
<p>이런 얼굴을 한 주희가 상당히 고집스럽다는 사실을, 진우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.</p>  
<p>'내가 있으니 별문제는 없겠지.'</p>  
<p>C급 다섯이 섞인 황동석 일행을 혼자서 상대해 본 적도 있으니까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그래요, 그럼."</p>  
<p>감시과 헌터가 서류 작업을 마치고 모여 있는 헌터들 앞에 나섰다.</p>  
<p>"감시과에서 일하는 강태식입니다.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제가 잘 감시할 테니 저놈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."</p>  
<p>강태식이 죄수들에게 손짓했다.</p>  
<p>죄수들이 터벅터벅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.</p>  
<p>강태식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들의 수갑을 풀어 주었다.</p>  
<p>"아오, 갑갑해서 죽는 줄 알았네."</p>  
<p>"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끌고 다녀도 되는 거야?"</p>  
<p>죄수들은 자유로워진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다.</p>  
<p>강태식은 그들을 무시하고서 다시 헌터들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오늘 누가 앞장서실 겁니까?"</p>  
<p>평소 리더 역할을 해 오던 송치열이 손을 반쯤 들었다.</p>  
<p>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송치열을 선두로 헌터들이 하나둘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"가죠."</p>  
<p>진우도 주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저번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는지 주희는 진우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이번 던전에서는 고블린들이 주로 나왔다.</p>  
<p>인간 형태의 마수 중에서는 최약체로 분류되는 고블린.</p>  
<p>던전 공략은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"키에에엑!"</p>  
<p>"키엑!"</p>  
<p>이 기괴하게 생긴 작은 괴물들은 힘을 얻기 전에도 상대할 만했었다.</p>  
<p>진우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블린들을 때려잡았다.</p>  
<p>"키에엑!"</p>  
<p>"칵!"</p>  
<p>생각보다 잘 싸우는 진우의 모습에 주희나 송치열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와."</p>  
<p>전력 대부분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.</p>  
<p>주희가 다가와서 물었다.</p>  
<p>"어디서 운동이라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?"</p>  
<p>"그게...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."</p>  
<p>"달리기요?"</p>  
<p>주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, 어쨌거나 거짓말은 아니니까.</p>  
<p>'그런데... 경험치가 아예 안 들어오네.'</p>  
<p>"끼엑!"</p>  
<p>[적의 레벨이 너무 낮아 경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.]</p>  
<p>"카각!"</p>  
<p>[적의 레벨이 너무 낮아 경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실망스런 표정을 했다.</p>  
<p>고블린들이 약해서 경험치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반복됐다.</p>  
<p>'이래서야 원...'</p>  
<p>심지어 고블린들이 주는 마정석까지도 최저 등급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C급이라는 죄수들은 간만의 자유가 신이 났는지 자신들의 무기로 마음껏 고블린들을 찢어발기고 있었다.</p>  
<p>"끼이엑!"</p>  
<p>"켁겍! 켁!"</p>  
<p>이렇게 보니 누가 마수이고, 누가 인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.</p>  
<p>'나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네.'</p>  
<p>경험치도 안 주고, 돈벌이도 안 되니까.</p>  
<p>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.</p>  
<p>'매번 이런 식이라면 협회에서 나가는 편이 좋으려나?'</p>  
<p>협회에서 들어오는 일은 D, E급 게이트의 공략이 대부분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D,E급으로는 레벨이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협회의 레이드에 참가할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'이제 어머니 병원비 정도는 내가 마련할 수 있으니.'</p>  
<p>언제든지 협회를 나갈 수 있었다.</p>  
<p>이래서 돈이 좋은 거다.</p>  
<p>돈이 생기자마자 선택권이 넓어졌다.</p>  
<p>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, 일행은 점점 던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.</p>  
<p>"어?"</p>  
<p>"음..."</p>  
<p>곧 그들 앞에 세 갈래의 갈림길이 나타났다.</p>  
<p>강태식이 송치열에게 건의했다.</p>  
<p>"던전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으니 여기서부터는 나눠서 가는 게 어떨까요?"</p>  
<p>"그렇게 헙시다."</p>  
<p>송치열도 동의했다.</p>  
<p>진우는 눈을 감고서 감각을 확장시켰다.</p>  
<p>'어느 쪽에 보스가 있을까?'</p>  
<p>그래도 보스는 경험치를 좀 주지 않을까, 하는 생각에서였다.</p>  
<p>곧 던전 안 생명체들의 기운이 하나하나 기감에 걸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눈을 뜬 진우가 송치열에게 말했다.</p>  
<p>"아저씨, 우린 왼쪽으로 가요."</p>  
<p>"그려."</p>  
<p>진우, 송치열, 주희는 왼쪽 길로, 강태식과 죄수들은 오른쪽 길로, 나머지 두 사람은 중앙 길로 가기로 하고 각자 흩어졌다.</p>  
<p>진우는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'보스는 이 길 끝에 있다.'</p>  
<p>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블린과는 다른 뭔가 독특하고 이질적인 기운이 동굴 끝쪽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빨리 보스를 잡고 싶었다.</p>  
<p>그런데 몇 걸음만 옮겨 가도 고블린들이 한 무더기씩 튀어나왔다.</p>  
<p>"킥킥."</p>  
<p>"키리리릭."</p>  
<p>"키익."</p>  
<p>이번엔 대략 열 마리 정도.</p>  
<p>나무 방망이를 든 놈, 나무칼을 든 놈, 기다란 나무 끝에 돌촉을 매단 놈.</p>  
<p>나름대로 열심히 무장하기는 했는데... 전혀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.</p>  
<p>'이놈들은 지겹지도 않나?'</p>  
<p>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돈도 되지 않는 놈들이 잔뜩 몰려다니니 성가시기만 할 뿐이었다.</p>  
<p>"열 마리씩이나..."</p>  
<p>"어떡하죠? 다른 사람들이랑 합류해서 다시 올까요?"</p>  
<p>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제법 진지했다.</p>  
<p>"그래도 고블린들뿐이니 일단은 한 번 싸워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먼."</p>  
<p>"네."</p>  
<p>송치열의 손끝에 불꽃이 일렁거렸고, 주희도 치료 마법을 쓸 준비를 마쳤다.</p>  
<p>진우는 뒷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 던전 안에 있는데도 전혀 긴장감이 안 드네.'</p>  
<p>전과 비교도 할 수 없게 강해져서일까?</p>  
<p>이제 겨우 조금은 달라졌다는 자각이 들었다.</p>  
<p>송치열이 진우에게 물었다.</p>  
<p>"성 씨. 준비됐는감?"</p>  
<p>"예."</p>  
<p>진우는 팀원들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고블린들을 잡아 나갔다.</p>  
<p>그렇게 열심히 던전을 공략하고 있을 때였다.</p>  
<p>갑자기 어딘가에서 비명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.</p>  
<p>"으아아아아아악!"</p>  
<p>"으아악!"</p>  
<p>고블린이 아니다.</p>  
<p>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.</p>  
<p>진우와 송치열, 이주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.</p>  
<p>잠시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다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"으아아악!"</p>  
<p>송치열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"가 봄세."</p>  
<p>세 사람은 빠르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.</p>  
<p>진우는 두 사람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었지만, 두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맞추었다.</p>  
<p>얼마나 달렸을까?</p>  
<p>주희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저기 사람이...!"</p>  
<p>거기엔 감시과 헌터 강태식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 꿇고 있었다.</p>  
<p>강태식이 소리쳤다.</p>  
<p>"조, 조심하세요! 그놈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!"</p>  
<p>힘들게 말을 내뱉은 강태식은 고통스러운 듯 바닥에 엎드렸다.</p>  
<p>"으윽."</p>  
<p>보다 못한 주희가 강태식에게 뛰어갔다.</p>  
<p>"제가 치료해 드릴게요!"</p>  
<p>주희에게도 생각이 있었다.</p>  
<p>적이 어딘가에 있다고 해도 자신은 B급에 해당하는 치유계열 헌터였다.</p>  
<p>치료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았다.</p>  
<p>그러니 적의 공격을 받기 전에 강태식을 치료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.</p>  
<p>"조금만 참으세요."</p>  
<p>강태식 앞에 선 주희가 양손을 뻗었다.</p>  
<p>은은한 빛이 손끝에 맺혀 갔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빠르게 상체를 일으킨 강태식이 마력을 담은 손끝으로 주희의 목 가운데를 노렸다.</p>  
<p>쉬익!</p>  
<p>손끝이 주희의 목젖에 닿기 직전, 누군가가 아슬아슬하게 강태식의 손목을 붙잡았다.</p>  
<p>탁!</p>  
<p>"아...!"</p>  
<p>놀란 주희가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았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강태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'이 간격에서 내 공격을 막아?'</p>  
<p>상급 헌터에게 하급 헌터들 몇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.</p>  
<p>유일한 걸림돌은 자신과 같은 B급 여자 헌터 하나였다.</p>  
<p>다행스러운 점은 그녀가 비전투계열이라는 것.</p>  
<p>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니 기습만 성공하면 쉽게 끝날 줄 알았다.</p>  
<p>그런데... 기습이 막히다니.</p>  
<p>공들여 연기한 보람이 없어진 것이다.</p>  
<p>강태식의 시선이 손목을 잡은 손을 따라 올라갔다.</p>  
<p>그 끝에는 진우의 얼굴이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에 강한 살기가 담겼다.</p>  
<p>강태식은 인상을 찌푸렸다.</p>  
<p>"협회의 말단 헌터 따위가!"</p>  
<p>쉬익!</p>  
<p>강태식의 다른 손이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틀어 주먹을 가볍게 흘려 보냈다.</p>  
<p>'아니?'</p>  
<p>강태식은 힘주어 진우의 손을 뿌리쳤다.</p>  
<p>"허?"</p>  
<p>진우도 놀랍다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역시 상급 헌터다운 힘이었다.</p>  
<p>양팔이 자유롭게 된 강태식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도 강태식 못지않은 속도로 움직이며 반격을 시도했다.</p>  
<p>파바박!</p>  
<p>두 사람의 손과 팔이 끝없는 공방을 주고받았다.</p>  
<p>둘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.</p>  
<p>그새를 틈타 송치열이 주희를 뒤로 끌고 나왔다.</p>  
<p>"아, 아저씨..."</p>  
<p>주희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하지만 주희 이상으로 놀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송치열이었다.</p>  
<p>'어떻게 이런 일이...?'</p>  
<p>믿을 수 없는 속도의 공방전이었다.</p>  
<p>눈으로 좇기가 힘들 정도였다.</p>  
<p>상급 헌터 쪽이야 그렇다 쳐도, 성진우는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.</p>  
<p>B급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'C등급인 내 눈으로도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벅차!'</p>  
<p>역시 예감이 맞았다.</p>  
<p>지금의 진우는 자기가 알고 있던, 그 약하지만 감이 좋던 E급 청년이 아니었다.</p>  
<p>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합을 겨룬 두 사람이 숨을 고르기 위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.</p>  
<p>진우가 강태식을 노려보며 미간을 구겼다.</p>  
<p>"그 옷에 묻은 피... 당신 피가 아니지?"</p>  
<p>강태식은 손목을 풀면서 대답했다.</p>  
<p>"그래, 그 새끼들 피다. 그건 그렇고 이런 데서 너만 한 헌터를 만날 줄이야."</p>  
<p>그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.</p>  
<p>협회 소속 말단 헌터 중에 상급 헌터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.</p>  
<p>'이러면 손해인데.'</p>  
<p>오늘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난관을 만났다. 강태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.</p>  
<p>"넌 누구냐? 무슨 랭크지?"</p>  
<p>진우가 '카사카의 독니'를 소환해 손에 쥐며 짧게 대답했다.</p>  
<p>"성진우. E급이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